

Issue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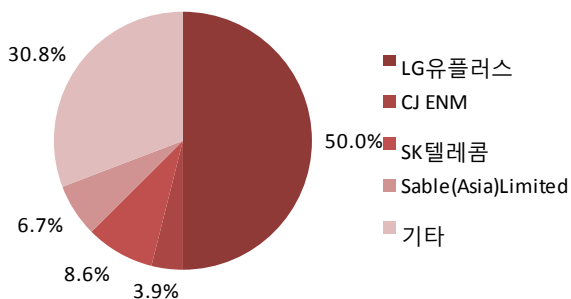
- ✓ LG 유플러스는 이사회를 통해 CJ 헬로 인수 의결
- ✓ 규모의 경제, 가입자 유지 등 긍정적 효과 기대
- ✓ 5G 투자재원 확보 및 SK 텔레콤이 보유한 CJ 헬로 지분 오버행 이슈는 부정적 요인

LG 유플러스, CJ 헬로 인수 의결

2월 14일 LG 유플러스는 이사회에서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 헬로 지분 50%+1주를 8천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기로 의결함. 14일 종가 기준 경영권 프리미엄은 97% 수준으로 당초 예상됐던 53.9% 지분을 1조원에 인수하는 규모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인수하게 된 셈. 가입자 당 가치는 전체 케이블 TV 가입자 기준 1인당 381,023원,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기준 1인당 583,424원임. 단기적으로 합병보다는 각자 경영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2018년말 기준 LG 유플러스는 402만명, CJ 헬로는 420만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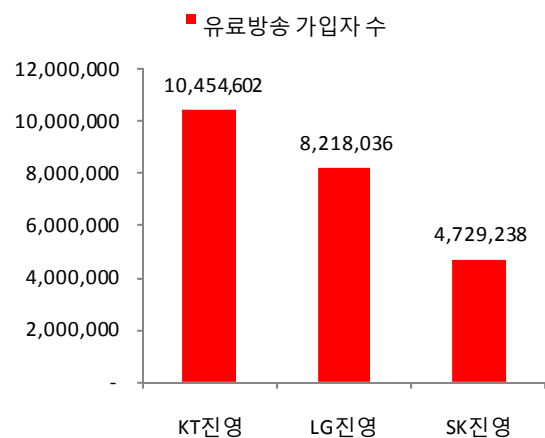
LG 유플러스의 CJ 헬로 인수로 LG 유플러스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력 제고 등 유료방송 내 규모의 경제 달성이 기대되며, CJ 헬로는 이동전화의 결합강화로 가입자 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만 LG 유플러스의 경우 본격적인 5G 투자를 앞둔 상황에서 투자재원 및 배당재원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수 있으며, CJ 헬로는 SK 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8.61% 지분이 오버행 이슈로 부각될 수 있음

CJ 헬로 주주구성



IPTV 진영 가입자 수

(단위: 명)



자료: CJ 헬로

자료: 각 사(4Q18 기준)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